

“임시청사 운영 최소화”

익산시, 신청사 내년 상반기 착공 앞두고 우려 불식 지역상권 · 시민불편 · 예산 절감 등 제반사항 고려

익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익산 시 신청사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시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2단계로 나누어 건립될 예정으로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청사 후면에 신청사를 먼저 건립하여 전 부서를 임시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임시청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산시의 유사한 규모와 여건으로 기존의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 춘천시의 경우 약 100여명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임시청사를 조성 운영한 사례가 있어, 익산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청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남중동 일원 지역의 상인들도 불만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공무원과 방문객은 주변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신청사를 임시청사로 이전·근무하는 2년여 동안 주변 상권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현을 시장은 지역상권

을 지키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임시청사를 조성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도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존치할 수 있는 2단계 공사방식을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검토 적용토록 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부서를 2개국, 근무인원 200명정도로 최소화했다.

더불어 임시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8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예정으로 넓은 주차장과 함께 이전 부서나 시설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임시청사의 조성과 이전 비용을 합해도 3억~4억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현재 임시청사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부서 특성을 고려해 일부 부서를 이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말도·명도·방축도 해상풍력 대책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해상풍력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시민발전-주민협의체, 해상풍력 협약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말도·명도·방축도 해상풍력 대책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해상풍력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선도할 해상풍력 발전기술 및 산업 활성화,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과 김임준 군산시장, 말도·명도·방축도 해상풍력 대책운영위원회 회장 및 임원, 군산시민발전(주) 서지만 대표이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해상풍력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군산대 박병선 총장의 개회사, 군산시 김임준 시장의 축사, 군산대 이강호 해상풍력연구원의 현황 설명, 업무 협약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대표자만 참석하였다. 이날 군산대학교는 대형 해상풍력

터빈 실증센터 설치와 관련한 국책 과제의 당해년도 추진내용 및 차기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단지 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축사를 통해 김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달성과 군산시의 에너지 지킴을 위해 군산대학교, 주민협의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협력하여 에너지 정책이 속도를 내고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수고한 군산대학교 관계자들과 시민발전, 주민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원은 2018년부터 정부의 연구과제인 군산 말도 해상풍력터빈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말도 인근해상에 55M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22년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으로, 향후 3개 섬 지선 내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남영봉 기자

익산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정부공모 선정 쾌거

익산 중앙시장이 정부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익산중앙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 공간과 공용 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공모 신청 후 서면 현장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비 17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4억을 확보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32개 청년 점포와 공용공간,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복합청년몰을 조성해 젊은층 고객이 방문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시장 서용석 상인회장은 “이번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기쁘다”며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전통시장에 관광객과 젊은층 고객을 유치해 골목상권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공모 계획수립부터 최종선정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김수홍 국회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

군산시-서울대 환경대학원 ‘손잡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사회 수용성 향상연구 업무 협약

군산시는 17일 시청 면담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



군산시는 17일 시청 면담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올해의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익산시가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17일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

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기 적절하게 개선함으로써 제

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법제의 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어 대부분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 /익산=정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송곳질의 시정 현안 개선 요구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가 제2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시정현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용균, 조규대, 오임선, 소병훈, 임택택 의원(총 5명)이 지역 주요 현안과 직결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용균 의원은 대산포진, B형 간염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조규대 의원은 석산 복구비 문제, 석재 원석 확보 문제 등 석재산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임선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산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은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 및 재활용 선별장 선별 비율과 관련한 확대 대책을 익산시에 주문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임택택 의원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및 확보대책, 익산시 공공요금 인상 및 시민부담 가중 문제점, 익산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군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시행했다.

시 시민납세과는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원) 대상으로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직장급여 압류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직장인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과감하게 진행해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